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7. 21.(화) 12:00
(지 면) 2026. 7. 22.(수) 조간

국립재난안전연구원, 안동 하회 마을에 문화유산 침수계측장비 시범 설치

- 국립재난안전연구원-국립문화유산연구원 협업, 기후변화 속 문화 유산
침수피해 선제 대응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손을 잡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극한호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동 하회마을에 침수계측장비를 시범 설치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협력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인 두 기관이 2025년 구축한 재난관리 협력 체계의 구체적인 결실이다.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문화유산의 침수 위험이 커짐에 따라,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.

안동 하회마을에 도입되는 침수계측장비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침수예측 연구팀이 자체 설계·제작한 장비다. 기존 상용 제품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 제작과 설치가 간편하면서도,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.

두 기관은 이번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침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, 향후 전국 주요 문화유산으로 장비 보급을 확대 촘촘한 재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연구실	책임자	실 장	최우정 (052-928-8200)
		담당자	연구사	조재웅 (052-928-8240)
담당 부서	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	책임자	실 장	조상순 (042-860-9230)
		담당자	연구사	김세현 (042-860-9212)